

# 의복과 메이크업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조화감 연구\*

## A Study on the Harmony for Contrast Coloration of Clothing and Makeup

정수진\*\*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Su-Jin Jeong

Dept. of Clothing & Textile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research, 128 stimuli of contrast coloration of lipstick and clothing were evaluated to the degree of harmony in the coordination of makeup and clothing color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of eyeshadow color(brown, violet), lipstick color(red, orange, and purple), lipstick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clothing style(formal, casual), and clothing tone(vivid, light, dull, and dark). Sets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were used as experimental materials. The subjects were 768 female undergraduates living in Gyeongsangnam-do.

As to the brown eyeshadow, dull lipstick and light, dull clothing, vivid, dull, dark lipstick and dark clothing among the combinations of red lipstick and blue green clothing, dull lipstick and light, dull, dark clothing, dark lipstick and dull, dark clothing among the combinations of orange lipstick and purplish blue clothing were evaluated as harmonious coloration regardless of the clothing style. As to the violet eyeshadow, combinations of red lipstick and blue green clothing and combinations of red purple lipstick and yellow green clothing wide come out range of disharmony

Thus, the degree of harmony in the contrast coloration can be perceived to be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color and tone of clothing and lipstick are coordinate.

Key Words : harmony, contrast coloration, makeup, clothing

## I. 서론

오늘날 현대사회의 문화 코드가 복잡·다양해지면서 외모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미(美)에 대한 가치 기준과 이미지 연출에 관한 연구 영역이 여러 분야로 확장되면서 특히, 메이크업과 의복색의 조화가 이미지 창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여러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자신감을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고, 대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트렌드 속에서 유행에 뒤지지 않으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는 스타일을 찾

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에게 어울리는 매력적이고 개성이 돋보이는 이미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의복뿐만 아니라 헤어스타일, 메이크업, 액세서리 등 토털 코디네이션이 요구된다. 이때,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색은 반드시 주위의 색과 함께 인지되므로 토털 코디네이션에서는 무엇보다도 색채의 조화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도 얼굴 이미지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메이크업 색채가 의복색채와 조화될 경우, 자신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연출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나아가서 외모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개성을 표현하며 심리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때, 현대사회에서 미(美)에 대한 관심과 이미지 연출에 대한 연구 방향의 증폭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의 성공적인 영위를 위한 지침이 되

\* 2006년 12월 1일 동계 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논문입니다.

\*\* Corresponding author: Su-Jin Jeong

Tel: 055) 742-6881, 010-7142-6881

E-mail: jini5980@hanmail.net

기 위해서라도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조화를 통한 컬러 이미지 연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메이크업 색채에 관한 선행연구로 메이크업의 색채경향 및 선호에 관한 연구(원명심, 이명숙, 1998; 김희선, 2002; 신향선, 2002; 한보현, 2003; 김영인 외, 2004)와 메이크업에 사용된 색채 변화에 따른 이미지 연구(윤소영, 2001; 이연희, 2001; 송미영, 박옥련, 하종경, 2005; 정수진, 강경자, 2006)가 있으며, 의복의 2색 배색에 따른 조화감 연구(강경자, 2001; 임지영, 2006)를 통해 의복색상의 톤이 중요한 단서임이 드러났다. 또한 얼굴색과 의복색을 관련시킨 선행연구(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박화순, 2002)들에서 얼굴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2006)에서 메이크업의 컬러 코디네이션에 따른 조화감 연구를 통해 조화와 부조화 영역을 밝혔으나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조화와 관련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정도를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메이크업 색과 의복색의 톤에 따른 조화판단에서 조화영역이나 부조화영역이 존재하고 조화감의 평가에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느낌을 수량화과정을 통해 객관화하여 조화영역과 부조화영역을 밝힐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배색에 따른 메이크업과 의복의 배색을 한 번에 다루기가 곤란하여 의복색을 립스틱 색상을 기준으로 보색 및 분보색으로 선정하여 통제 후 의복의 톤과 의복스타일, 아이섀도 색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밝히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채조화

조화로운 배색은 하나의 색으로 나타낼 수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조합된 색이 아름답고 좋은 느낌을 갖출 상태를 말한다(Itten, 1996). 색은 단색으로 지각되기 보다는 주위의 색에 따라서 다르게 지각되므로 배색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컬러 코디네이션에서의 색채조화는 두 가지 요소 또는 그 이상의 요소들의 색들 간의 관계에서 미를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코디네이션 되는 요소들의 상호관련성에 따라 조화정도는 달라질 수 있다. 배색의 목적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특별한 효과나 목적에 맞게 위치시키거나 조합으로 조화되도록 하여 디자인의 전체 효과를 높이는 데 있으며, 색의 3속

성인 색상과 명도, 채도의 관계를 적절히 조화시키는 전개방법으로 다수의 배색 변화를 얻을 수 있다.

초기의 색채조화론은 음악이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 많았으나 그 다음 시대에는 보색이론을 근거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주로 색의 삼속성 중 색상에 관한 것이었으나 점차 색상 이외의 명도나 채도에 관해서도 연구하게 되어 오늘날 색채조화 이론에 접근하게 되었다. 현대의 색채조화에 대한 이론을 발표한 슈브렐(Chevrel)은 색의 조화와 대비의 원리(the principle of harmony and contrast)라는 저서에서 색의 삼속성에 근원을 둔 유사조화와 대비조화로 구분하고 대비조화에는 같은 색에서 명도의 차를 극단적으로 벌어지게 배합시킴으로서 얻어지는 명도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의 차를 크게 두어 배합시키는 색상대비에 따른 조화, 색상과 거리가 먼 보색끼리의 대비로서 이때에 명도를 대비시켜 더욱 대비효과를 나타내는 색채대비에 따른 조화가 있다고 하였다(유송옥, 1996).

먼셀(A.H. Munsell)은 완전한 밸런스가 이루어진 색이 조화를 이룬다고 하였고, 오스트발트(W. Ostwald)는 두 가지 이상의 색채 사이에 질서가 존재할 때 즐거운 감정이 생기고,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조화라고 하였다. 문과 스펜서(P. Moon & D. E. Spencer)는 배색에서 조화와 부조화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조화의 종류를 동일성의 조화, 유사성의 조화, 대조성의 조화인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좋은 배색을 위해서는 두 색의 간격이 애매하지 않은 배색, 오메가 공간에서 간단한 기하학적 관계가 되도록 선택된 배색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박영순, 이현주, 1998).

콘트라스트 배색은 보통 좌우 165-180도 범위의 반대 색상 또는 분보색 간의 배색으로 색상차가 큰 대립관계를 살린 부조화스러움과 저항감이 큰 배색으로 유목성이 높아 화려하며 젊음과 활력을 나타내는데 사용되지만, 자극적이거나 때로는 불쾌감을 주어 원만한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다(김영자, 1992). 이때 명도나 채도에 변화를 주어 불쾌감을 감소시키거나 액센트되는 부분에 사용하여 좋은 효과를 연출할 수 있다. 이러한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보색을 잘 조합하거나 색의 명도를 잘 활용할 경우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다(유금화, 2002). 색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명도와 채도는 통일되게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는데 효과적이며(이은영, 1992), 그리고 저명도와 조합하거나 저채도와 조합하여 색상차를 저하시키는 색채 조합을 하거나 액센트 색과 같이 면적비를 고려한다면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조민정, 2004).

색상의 조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면 각 색상을 알

맞은 명도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색상의 배색이라도 주색채와 부색채의 명도대비 정도에 따라서 의복 착용자의 전체 느낌이 달라진다. 대체로 명도차가 클수록 조화되기 쉽고, 명도차가 적을수록 조화되기 어렵다. 또한 명도차가 클 경우는 채도차가 적은 편이 조화되기 쉽고 색상차가 클 때는 비교적 명도차에 의한 영향은 적다. 따라서 조화에 영향을 미치는 명도는 색상의 톤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며 색상과 마찬가지로 명도의 관계가 애매할 경우에도 부조화를 이루게 된다(이은영, 1992). 즉, 두 색의 간격이 모호하지 않고 여러 색이 배색되어 유쾌한 감정을 줄 때 조화되었다고 하며, 두 색의 관계가 모호할 경우 불쾌한 감정을 주며, 부조화의 원인이 되므로(김수석, 1993), 색채조화는 배색에 질서와 다양성, 통일과 변화와 같은 반대 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화시켜 미적인 상태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 2. 메이크업과 색채

인간이 기본적으로 타고난 외모가 형태라면 거기에 조화로운 색채를 부여하여 완성하는 것이 메이크업으로, 메이크업은 외모를 돋보이게 하거나 자신을 색다른 모습으로 변화시키기도 한다. 메이크업에 사용된 색채는 서로 영향을 줌으로써 미적 효과를 나타내어 메이크업의 목적을 이루게 되며, 색채가 주는 감정으로 인해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다(김희숙, 이은임, 1996).

화장이나 의복을 매개로 한 인간의 색채 활동은 신체의 아름다움이나 매력성 강화 등의 미적 욕구를 성취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신체에 가해진 색채는 가장 직접적인 미적 표현방법으로 자기 만족감을 높이는 수단 이 됨과 동시에 타인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지침이 되기도 한다. 특히, 얼굴의 매력성은 얼굴형태와 표정, 그리고 화장으로 결정되는데 화장은 얼굴장식의 주된 행위로서 얼굴매력성은 선택된 메이크업 색채에 따라서 가감될 수 있다. 즉, 메이크업은 얼굴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고 수정기능을 가짐으로써 의복과 함께 사용되는 자기 장식법이며 특히 눈과 입술화장은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大坊郁夫, 1996).

메이크업 색상 선호도와 관련된 연구로 원명심, 이명숙(1998)의 색조 화장품의 색 선호조사에서 립스틱의 색상으로 브라운(65.3%), 빨강(15.6%), 와인(12.4%)색상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하였고, 신향선(2002)의 메이크업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 아이섀도 색상은 핑크(26%), 블루(14%), 립스틱 색상은 핑크(29%), 브라운(14%), 오렌지(12%)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조사 시

기나 조사 대상자에 따라 선호색상은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김희선(2002)은 1972년부터 2001년까지의 색채화장품의 유행색채 특성 조사에서 메이크업 전체 색채특성은 색상분포가 빨강(39.2%), 주황(25.8%), 자주(12.1%)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색조분포는 톤 톤(14.2%), 라이트 톤(14.0%) 순으로 중채도, 중·고명도의 색조가 많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한보현(2003)은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에서 메이크업의 전체 색상분포는 빨강(63.5%), 자주(11.3%), 주황(8.6%) 순으로 빨강 계열이 많이 나타났고, 아이섀도 색상과 색조는 빨강과 라이트 톤, 소프트 톤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선호하는 립스틱 색상은 빨강(92.2%), 자주(5.2%)로 조사하였다. 김영인 외(2004)는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전반적인 색채 특성과 아이템별 색채특성, 그리고 국내외 메이크업 색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에서 2.5R에서 7.5R에 이르는 빨강영역을 색조화장품의 가장 중요한 색채영역으로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자의 선행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인 메이크업의 컬러 코디네이션에 따른 조화감 연구에서 아이섀도 색이 갈색일 경우 빨강, 주황립스틱이 톤과 다크 톤일 때 조화감이 높게 나타났고, 대체로 주황, 자주립스틱은 아이섀도 색이 갈색, 보라로 유사색상과 코디네이션 될 때 조화배색으로 지각되어 아이섀도와 립스틱에 사용된 색에 따라 조화감의 차이를 보였다.

## 3. 의복과 색채

의복의 색채는 인체의 색채와 인체 위에 놓인 표면의 색채 등이 포함되며 인체 색은 인체 위에 놓인 의복색에 영향을 주고 또한 반대로 의복색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금기숙 역, 1997). 의복단서가 되는 색은 단색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복수의 색이 사용되기도 한다. 복수의 색이 배색될 때 일반적으로 지각자는 각각의 색을 분리시켜 지각하지 않고 조직화된 전체로 지각하게 되는 행동 패턴을 가진다. 또한 의복 디자인에서 색채는 형태나 패턴보다도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강경자, 2001).

은소영 외(2002)는 의복배색을 배색 연출 방법에 따라 대조배색, 조화배색, 액센트 배색으로 분류하여 시각적 감성 차이를 분석하고 유쾌한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대조배색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보는 사람에게 유쾌하게 느껴질 때 그것들의 색은 조화되어 있다고 한다. 서로 같은 정도의 보색인 두 색을 나란히 놓을 때에, 서로 사이에 그 색의 특성이 잘 나타나 보임으로써 대립 관계가 심하게 느껴지지만, 그러한 대립감이 조화의 한

원리가 되기도 한다(박은주, 1999). Walton과 Morison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선호하는 배색으로 빨간색과 초록색의 배색을 포함시켰다(김화중, 1991). 조민정(2004)의 연구에서 패션디자인의 색채 조합에는 통일적 요소로 색상이, 변화의 요소로 톤이 많이 사용되며, 저채도와와의 조합에서 높은 조화도를 보이며, 채도 변화에 의한 톤 변화보다는 명도 변화에 의한 톤 변화가 더 조화도를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색상 차이가 증가할수록 조화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동일색상 또는 유사색상의 경우가 조화롭다고 본 색채조화 원리를 역으로 설명하고 있다. 김숙희와 Nakagawa(1999)의 의복 색채 조화론에 관한 연구에서는 색상차가 적고 색조차가 적거나 큰 배색은 조화되지만, 색상차가 큰 배색은 부조화로 나타났다.

한복배색에서 톤은 톤 배색, 톤인 톤 배색, 유채색과 무채색 배색, 콘트라스트 배색 등을 중심으로 2색 배색에 대한 조화감을 체계화한 강경자(2001, 2002, 2003, 2005)의 연구에서 한국여대생은 조화감을 느끼는 배색의 분포 범위가 좁은데 반해 미국 여대생은 광범위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한국 여대생은 상하 동일한 톤의 배색을 대체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조화되는 톤 조합은 명도의 차이에 의한 중량감에 의해 명도가 낮은 톤이 아래에 명도가 높은 톤이 위에 놓이는 것이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색상을 기준으로 한 배색보다는 명도 차에 의한 배색이 상대적으로 조화범위가 높게 나타나 문-스펜서의 색상에 의한 방법보다 명도 차가 조화에 깊이 관여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얼굴색과 의복색을 관련시킨 이정옥 외(1995)는 한국 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에서 유채색은 활동성이 높고, 무채색은 평가성과 조화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톤에 따른 배색 이미지는 어두운 의복색>둔한 의복색, 밝은 의복색>선명한 의복색 순으로 얼굴색과 어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 유형을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의복색 경향을 분석한 박화순(2002)의 연구에서 얼굴색에 어울리는 의복색은 색의 온도감에 의한 특징보다 톤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에서 볼 때 배색의 조화정도는 구성색의 선택에 의해 어느 정도 좌우되고 의복색의 톤에 따라 조화도는 달라질 수 있으며, 얼굴색에 따라서도 조화되는 의복색이 다를 수 있다. 메이크업 색과 의복색의 조화에 따라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으므로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조화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콘트라스트 배색은 동일하거나 유사

한 색상간의 배색에 비하여 조화되기가 다소 어려운 배색이지만 조화가 잘 되었을 경우 미적으로 우수하고 강렬하고 화려한 느낌을 주며 현대 감각에 맞는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립스틱과 의복의 배색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통제하여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 조화정도를 규명하고자 한다.

### III. 연구방법

#### 1. 측정도구

#####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메이크업을 한 20대 여성의 의복 착용 전신사진으로, 모델 선정을 위해 J 대학교 여대생 58명의 얼굴 및 키와 몸무게를 직접 측정한 자료와 조용진(1999)이 제시하는 한국인의 평균 얼굴(머리전체길이: 233.38, 얼굴길이: 194.05, 얼굴폭: 141.74) 및 사이즈코리아에서 발표한 제5차 한국인 인체 치수 조사의 20대 표준자료(키:159.7, 몸무게: 52.9)를 참고로 평가집단(의류학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평가하도록 한 후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되는 메이크업 모델과 의복 착용을 위한 표준체형 모델을 각각 1명씩 최종 선정하였다.

메이크업의 아이세도 색은 색채가 갖는 속성 중 온도감을 기준으로 한난색과 중성색인 갈색, 보라, 파랑을 선정하여 선행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에서 실험연구 하였으나 한색인 파랑 아이세도는 얼굴이미지 평가에서 대체로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며 계절의 영향에 많이 좌우되는 색상으로 간주되어 제외시키고 본 연구에서는 갈색과 보라 아이세도로 한정하였다. 립스틱 색상은 선행연구(원명심, 이명숙, 1998; 신향선, 2002; 김영인 외, 2004)들을 참고로 립스틱 색상 중 가장 기본색상인 빨강을 기준으로 색상환에서 좌우에 위치하고 있는 주황, 자주 3가지 색상을 선정하여 기본과 유사색상으로 구분하여 조합시켰다. 즉, 갈색아이세도일 경우 빨강립스틱(기본)과 주황립스틱(유사)을, 보라 아이세도일 경우는 빨강립스틱(기본)과 자주립스틱(유사)을 사용하여 각 립스틱 색상을 채도는 중간으로 고정하고 명도를 변화시켜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4가지 톤이 되도록 립스틱 색상을 선정하였다. 피부색은 선정된 모델의 피부색과 한국인 표준 피부색을 참고로 하여 파운데이션과 파우더의 색상을 선정하였고 눈썹은 회갈색으로, 아이라인은 검정색으로 하였으며, 눈썹과 입술의 형태는 표준형으로 하여 메이크

업의 다른 변인들은 통제하였다. 또한 자극물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헤어스타일은 앞머리를 뒤로 빗어 넘겨 뒤에서 묶은 형으로 하였다.

의복은 의복유형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론(Sweat & Zentner, 1985)을 바탕으로 하여 선행연구(김윤경, 강경자, 2003)에서 사용한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로 분류하였다. 각 스타일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의복유형을 패션잡지에서 3가지씩 선택하여 평가집단(의류학전공 교수 및 대학원생)에게 평가하게 한 후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스타일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포멀 스타일은 테일러드 칼라의 기본형 재킷에 무릎아래 길이의 타이트스커트 차림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카디건에 팬츠 차림으로 통제하였다. 의복의 색은 립스틱 색상을 기준으로 보색 및 분보색을 선정하여 립스틱 색상이 빨강일 경우는 청록(5BG)을, 주황립스틱일 경우는 남색(5PB), 자주립스틱일 경우는 연두(5GY)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각각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톤으로 변화시켰다. 자극물의 립스틱과 의복에 사용한 색상과 톤은 한국 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도구는 아이세도 색(갈색, 보라), 립스틱 색상(기본: 빨강, 유사: 주황, 자주), 립스틱 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 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스타일(포멀, 캐주얼)을 조합하여 만든 총 128개의 메이크업을 한 의복 착용자 사진 자극물과 메이크업과 의복 색상의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한 의미미분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극물 제작을 위해 선정된 아이세도 색으로 먼저 눈화장을 하고 립스틱 색상과 톤을 변화시켜 가면서 메이크업을 하여 각각 Digital Camera로 촬영하였고, 선정된 포멀 스타일과 캐주얼 스타일을 착용하게 한 후 촬영하여 Photoshop 7.0 program에 이미지를 입

력시켜 메이크업한 얼굴사진과 의복을 착용한 사진을 맵핑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의 색상에 준하여 수정한 후 자극물 사진은 메이크업한 얼굴에 의복을 착용한 전신사진(8×16)으로 하여 Epson R210 프린트기로 출력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아이세도 색 2가지(갈색, 보라), 립스틱 색상 2가지(기본: 빨강, 유사: 주황, 자주), 립스틱 톤 4가지(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 의복스타일(포멀, 캐주얼), 의복 톤(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의 5원 요인설계 및 피험자간(between subject)설계로 이루어졌다. 5가지 독립변인에 의해 조합된 총 128개의 자극물을 6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실험조합별 피험자 수는 12명씩 무선배치 되었다.

3) 조화감 척도

본 연구에서는 자극물의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합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하기 위해평가자가 경험적이고 감각적으로 느끼는 심미적인 측면과 관련된 주관적인 반응을 메이크업 색과 의복색이 “조화되는-조화되지 않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의 형용사쌍을 사용하여 7단계 의미미분척도를 제시하여 1점에서 7점까지로 조화정도를 표시하게 한 후 자료를 수광화 하였다. 자극물에 대한 조화감 척도의 신뢰도는 내적일치도 방법에 의해 Cronbach’s α 계수 .943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피험자는 경남지역 20대 여대생 768명을 대상으로 의류 및 생활과학 관련학과(51.3%), 미술 및 디자인 관련학과(12.11%), 뷰티계열(33.59%), 기타(2.99%)로 구성되었으며, 조사는 2006년 3월~4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강의실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메이크업 색상, 의복스타일, 의복 톤에 따른 조화감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 방법으로 L.S.D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1>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의 색상과 톤

색상 \ 톤	비비드 (vivid)	라이트 (light)	덜 (dull)	다크 (dark)
빨강 (red)	5R4/14	5R8/6	5R5/6	5R2/6
주황 (orange)	5YR6/14	5YR8/4	5YR5/4	5YR2/4
자주 (red purple)	5RP4/12	5RP8/6	5RP4/6	5RP2/6
청록 (blue green)	5BG5/10	5BG8/4	5BG5/4	5BG2/4
남색 (purplish blue)	5PB4/12	5PB8/6	5PB4/6	5PB2/6
연두 (yellow green)	5GY7/12	5GY9/4	5GY5/4	5GY3/4

### IV. 결과 및 논의

립스틱과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조화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아이새도 색(2), 립스틱 색상(2), 립스틱 톤(2), 의복스타일(2), 의복 톤(4)을 각각 다르게 조합한 128개의 자극물에 대한 조화정도를 평가시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색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 조화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2>와 [그림 1]과 같다.

##### 1) 립스틱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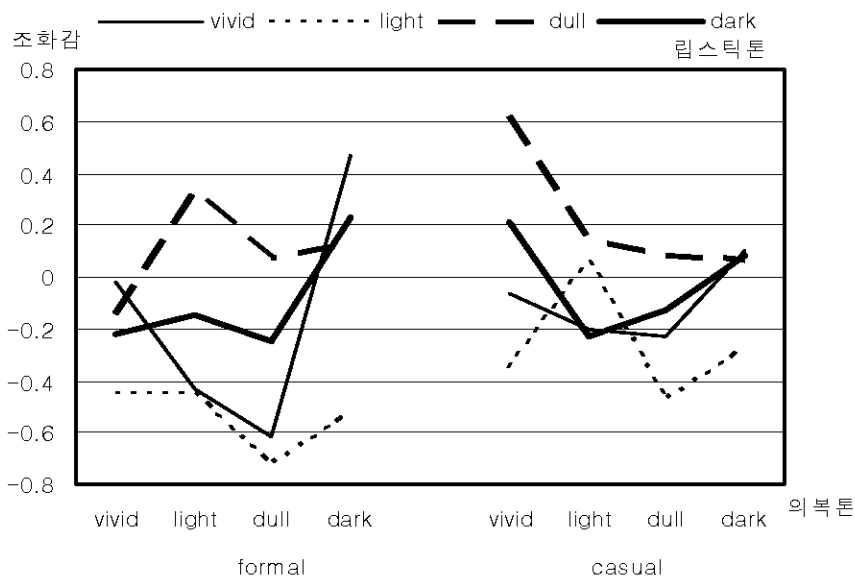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청록색 비비드 톤 의복에 립스틱 톤을 4가지 톤으로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립스틱 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포멀 스타일은 립스틱 톤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립스틱 톤이 덜과 다크 톤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포멀 스타일 보다 캐주얼 스타일에서 높은 조

화도를 보였다.

청록색 의복 톤을 라이트 톤으로 통제하여 4가지 톤의 빨강 립스틱과 각기 조합할 경우 덜 톤 립스틱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조화되는 립스틱으로 나타났으며, 라이트 톤 립스틱은 캐주얼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포멀 스타일에서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톤의 청록색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스타일은 립스틱 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덜 톤 립스틱일 때 가장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비비드>다크 톤 순으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포멀 스타일과 유사하게 덜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비비드, 라이트,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다크 톤의 청록색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일 때 립스틱 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비비드>다크>덜 톤 순으로 조화되고,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립스틱 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비드, 덜,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조화되고,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은 부조화로 지각하여 의복스타일 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즉 어둡고 짙은 다크 톤 청록색 의복을 착용할 경우는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1] 갈색 아이새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2> 갈색 아이섀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립스틱톤	의복	청록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빨강	vivid	-.02ab	-.06	.078	-.43b	-.20	-.548	-.62bB	-.23	-1.132	.47aA	.10	1.008	3.598*	.264
	light	-.45	-.35	-.236	-.45	.06	-1.075	-.73B	-.48	-.864	-.52B	-.28	-.686	.229	.731
	dull	-.15	.62	-2.326*	.33	.15	.454	.07A	.08	-.034	.13AB	.06	.170	.747	.896
	dark	-.22	.21	-1.129	-.15	-.23	.208	-.25AB	-.13	-.349	.23AB	.08	.401	.787	.503
F		.386	2.548		1.832	.363		3.666*	.772		3.073*	.467			

2)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 색상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 빨강 립스틱일 경우 포멀스타일일 때 의복색의 톤 변화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 톤일 경우 조화배색으로, 덜, 라이트, 비비드 톤 의복과의 조합 순으로 부조화 배색으로 평가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의복 톤이 다크 톤일 경우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라이트 톤 립스틱을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과 각각 조합할 경우 라이트 톤 캐주얼 의복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라이트 톤 립스틱이 부조화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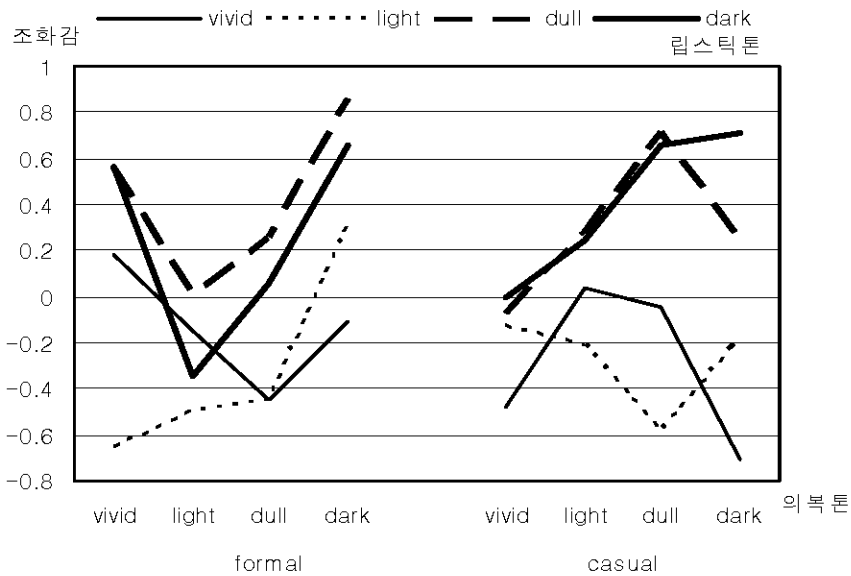
덜 톤 립스틱을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과 각각 조합할 경우 비비드 톤 포멀 스타일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배색으로 지각하여 빨강 덜 톤 립스틱은 조화감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

복 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 캐주얼 스타일일 때 가장 높은 조화도를 보여 의복스타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 립스틱을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과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인 다크 톤 의복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캐주얼 스타일은 비비드와 다크 톤 의복과의 조합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덜 톤 의복과의 조합에서는 부조화로 평가하였다.

2. 갈색 아이섀도일 경우 주황색 립스틱과 남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 조화

갈색 아이섀도일 경우 주황 립스틱과 남색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3>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갈색 아이섀도일 때 주황 립스틱과 남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3> 갈색 아이새도일 때 주황 립스틱과 남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립스틱톤	의복	남색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주황	vivid	.18A	-.48	1.326	-.15	.04	-.458	-.45	-.04B	-1.278	-.11	-.71C	1.495	.652	1.780
	light	-.65bB	-.13	-1.207	-.50b	-.21	-.843	-.45b	-.58B	.498	.31a	-.18BC	1.360	3.722*	.585
	dull	.56A	-.08	1.707	.01	.28	-.706	.26	.71A	-1.069	.86	.26AB	1.408	1.611	1.367
	dark	.57A	.00	1.577	-.34	.24	-1.591	.06	.66A	-1.664	.66	.71A	-.128	3.361*	1.667
F		4.882*	2.548		.648	.786		1.933	7.741***		2.149	4.831**			

### 1) 립스틱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남색 비비드 톤 의복에 립스틱 톤을 4가지 톤으로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라이트 톤 립스틱과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립스틱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에서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이트 톤 남색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기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덜 톤 립스틱과의 조합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동일 톤인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한 덜, 다크, 비비드 톤 립스틱과의 조합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덜 톤 남색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각 조합할 경우 립스틱 톤이 비비드와 라이트 톤일 경우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립스틱 톤이 덜과 다크 톤일 경우는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스타일 간에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는 동일 톤인 덜 톤과 어울고 탁한 다크 톤일 경우 조화도가 높게 나타나 립스틱 톤 간의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다크 톤 남색 의복을 4가지 톤의 립스틱과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비비드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고, 캐주얼 스타일은 덜과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 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 색상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 주황 립스틱일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인 비비드 남색 의복과의 조합일 경우에만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라이트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낮은 조화도를 보였다.

라이트 톤 주황 립스틱을 4가지 톤의 남색 의복과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스타일은 의복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다크 톤 의복일 경우 조화되는 것으로, 비비드, 라이트, 덜 톤 의복 순으로 부조화되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4가지 의복 톤 모두 부조화로 지각하여 라이트 톤 립스틱이 조화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립스틱임을 알 수 있다.

덜 톤 주황 립스틱을 4가지 톤의 남색 의복과 각각 조합할 경우 비비드 톤의 캐주얼 스타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립스틱은 의복보다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립스틱 톤의 영향이 조화감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크 톤 립스틱을 4가지 톤의 남색 의복과 각각 조합할 경우 라이트 톤 포멀 스타일을 제외한 모든 조합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났다. 즉, 어둡고 탁한 덜과 다크 톤의 남색의복에 메이크업이 갈색 아이새도와 주황 립스틱으로 유사배색으로 조합될 경우 조화가 잘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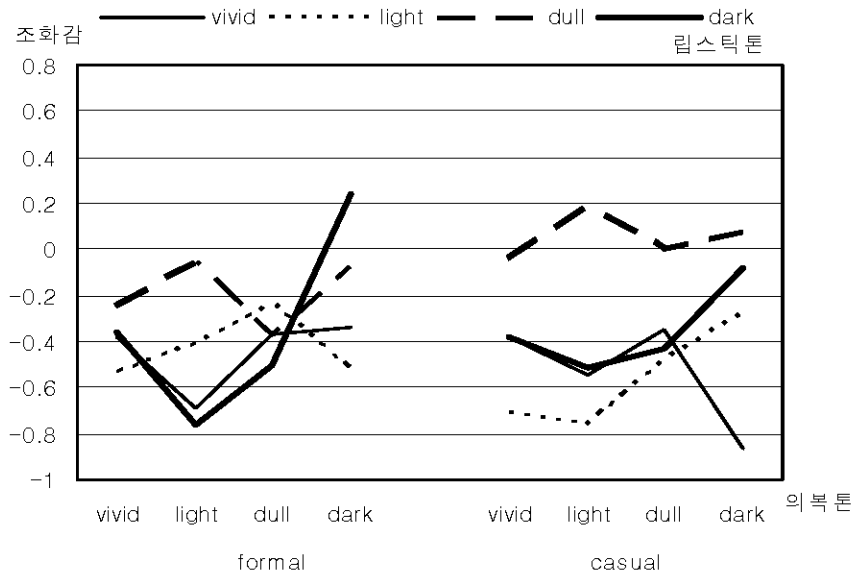
### 3.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색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 조화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3]과 같다.

#### 1) 립스틱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청록색 의복에 빨강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 부조화로 나타났다.





[그림 3] 보라 아이섀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4> 보라 아이섀도일 때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립스틱톤	의복	청록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빨강	vivid	-.38	-.38	.003	-.69	-.54	-.430	-.37	-.35	-.049	-.34	-.87	1.699	.401	.914
	light	-.53	-.71	.697	-.41	-.76	1.020	-.23	-.48	.584	-.52	-.28	-.658	.244	1.069
	dull	-.24	-.04	-.587	-.06	.19	-.627	-.38	.00	-1.016	-.08	.08	-.373	.316	.124
	dark	-.36ab	-.38	.063	-.76b	-.51	-.620	-.50b	-.43	-.233	.24a	-.08	.744	3.220*	.394
F		.266	1.332		1.612	1.940		.176	.719		1.362	2.792			

라이트 톤 청록색 의복에 빨강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덜 톤 립스틱과 캐주얼 스타일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부조화로 평가되어 부조화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일 톤의 캐주얼 스타일과 포멀 스타일의 비비드와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일 때 매우 낮은 조화도를 보였다.

덜 톤 청록색 의복에 빨강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라이트 톤 의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덜 톤 립스틱과 캐주얼 스타일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어 부조화 범위가 넓은 배색으로 볼 수 있다.

다크 톤 청록색 의복에 빨강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인 다크 톤과의 배색은 조화되는 것으로, 나머지 톤에서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덜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립스틱 톤이 비비드 톤일 경우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 색상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비비드, 라이트 톤 빨강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덜 톤 빨강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청록색 의복의 4가지 톤 변화에 모두 부조화로 지각하였으나 캐주얼 스타일은 비비드 톤 의복을 제외하고는 라이트, 다크, 덜 톤 순으로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크 톤 빨강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청록색 의복을 각

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인 다크 톤 의복과의 조합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덜, 비비드 톤 의복과의 조합 순으로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의복 톤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반면에 캐주얼 스타일은 4가지 의복 톤 모두 부조화로 나타났다.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으로 동일한 조건이라도 조합되는 아이새도 색상에 따라 조화정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보라 아이새도는 갈색 아이새도 보다 조화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자주색 립스틱과 연두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 조화

보라 아이새도일 경우 자주 립스틱과 연두색 의복을 4가지 톤으로 변화시켜 의복스타일에 따른 조화감을 평가한 결과는 <표 5>와 [그림 4]과 같다.

1) 립스틱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별로 의복색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립스틱 색상의 톤을 변화시켜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연두색 의복에 자주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캐주얼 스타일 모두 부조화로 평가하였고, 특히, 립스틱 톤이 어둡고 짙은 다크 톤일 경우를 가장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지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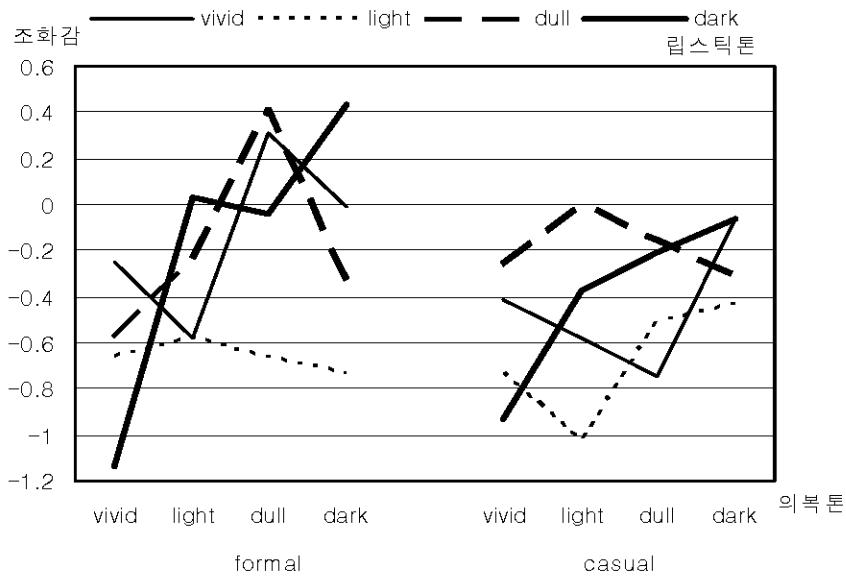
라이트 톤 연두색 의복에 자주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덜 톤일 경우에는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일 경우는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 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덜 톤 연두색 의복에 자주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립스틱 톤이 선명한 비비드와 동일 톤인 덜 톤일 경우에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일 경우에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 톤 변화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4가지 립스틱 톤 모두에서 부조화로 나타났다.

다크 톤 연두색 의복에 자주 립스틱 톤을 4가지로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 조합인 다크 톤 립스틱과의 조합에서 조화되는 것으로,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가장 부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여 립스틱 톤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캐주얼 스타일은 의복 톤이 덜 톤일 경우와 동일하게 4가지 톤의 립스틱과 조합될 때 부조화로 평가하였다.

2) 의복색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지각

각 톤 별로 립스틱 색상의 톤이 통제된 상태에서 의복 색의 명도에 변화를 준 후 그 조화정도를 살펴보면, 먼저 비비드 톤의 자주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연두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의복 톤이 덜 톤일 때 의복스타일 간



[그림 4] 보라 아이새도일 때 자주 립스틱과 연두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표 5> 보라 아이섀도일 때 자주 립스틱과 연두색 의복의 톤 변화에 따른 조화감 평가

립스틱톤	의복	연 두												F	
		vivid			light			dull			dark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t	formal	casual
자주	vivid	-.25	-.41	.348	-.58	-.58AB	-.006	.31A	-.74	2.382*	-.01AB	-.06	.110	1.748	.986
	light	-.66	-.73	.221	-.58	-1.02B	1.209	-.66B	-.51	-.473	-.73B	-.43	-.929	.058	1.268
	dull	-.58	-.26	-.936	-.24	.00A	-.635	.41A	-.15	1.443	-.34AB	-.31	-.070	2.628	.311
	dark	-1.14b	-.93	-1.022	.03a	-.37A	.767	-.04aAB	-.21	.421	.43aA	-.06	1.220	5.459**	1.745
F		2.513	1.317		.806	3.738*		3.061*	1.023		3.907*	.419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덜 톤 포멀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조화로 평가하였다.

라이트 톤의 자주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연두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의복스타일과 의복 톤 변화에 상관없이 모두 부조화로 평가하여 부조화 범위가 넓게 나타났으며, 특히 라이트 톤 캐주얼 스타일일 때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덜 톤의 자주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연두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포멀 스타일은 동일 톤인 덜 톤 의복과의 조합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라이트 톤 의복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크 톤의 자주 립스틱에 4가지 톤의 연두색 의복을 각각 조합할 경우 의복의 톤 변화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비비드 톤 포멀 스타일을 가장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라이트, 다크 톤 포멀 스타일은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그 중에서도 립스틱과 동일한 톤인 다크 톤 의복 착용 시 가장 높은 조화를 보여 다른 배색 조합에서와 마찬가지로 다크 톤 립스틱과 의복의 조합을 조화로운 배색 유형으로 볼 수 있으며 색상보다 톤이 조화감 평가에 깊이 관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전반적으로 콘트라스트 배색의 조화감 평가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색상차가 증가할수록 조화감이 낮아진다고 한 조민정(2004)의 연구결과 및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유형 중 콘트라스트 배색에 대한 조화가 낮게 나타난다고 한 임지영(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 V. 결론

본 연구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컬러 코디네이션에서 아이섀도 색, 립스틱 색상, 립스틱 톤, 의복스타일 및 의복 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분석하기 위해 립스틱과 의복의 색상을 대비색상으로 선정하여 체도는 통제하고 명

도만 변화시켜 립스틱과 의복의 톤을 다르게 조합하였다. 콘트라스트 코디네이션에 따른 128개의 자극물에 대해 조화감을 평가하여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을 밝히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갈색 아이섀도인 경우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에서 5개, 캐주얼 스타일에서 8개로 나타나 캐주얼 스타일의 조화범위가 다소 넓게 나타났다.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덜 립스틱과 라이트, 덜 톤 의복, 비비드, 덜, 다크 톤 립스틱과 다크 톤 의복은 조화되었고, 의복스타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색은 덜 톤 립스틱에 비비드 톤 의복의 배색으로 포멀 스타일에서는 조화되지 않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에서는 조화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라이트 톤 립스틱은 라이트 캐주얼스타일을 제외한 배색에서 부조화로, 덜 톤 립스틱은 비비드 포멀스타일을 제외한 배색에서 조화로 나타나 조화, 부조화에 립스틱 톤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다크 톤 의복은 라이트 톤 립스틱과의 조합을 제외하고는 조화로운 것으로 나타나 빨강 립스틱은 연하고 밝거나 선명한 의복색 보다는 어둡고 탁한 의복과 더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갈색 아이섀도인 경우 주황 립스틱과 남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은 9개, 캐주얼 스타일은 8개로 나타나 조화의 범위가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덜 립스틱과 라이트, 덜,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과 덜, 다크 톤 의복은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조화된다는 공통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덜 톤 립스틱과 비비드 캐주얼 스타일, 다크 톤 립스틱과 라이트 포멀 스타일을 제외하고는 덜과 다크 톤 립스틱과 조합될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다크 톤 포멀 스타일을 제외한 라이트 톤 립스틱은 부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립스틱 톤이 조화감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라 아이새도인 경우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에서 1개, 캐주얼 스타일에서 3개로 나타나 조화영역의 범위가 좁게 나타났으며, 의복스타일에 상관없이 모두 조화되는 배색과 의복스타일 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부조화의 범위가 광범위하게 나타난 가운데 덜 톤 립스틱은 라이트, 덜, 다크 톤 의복, 다크 톤 립스틱과 다크 톤 포멀 스타일일 때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동일한 빨강 립스틱과 청록색 의복 배색이라도 갈색 아이새도로 조합된 경우와 비교할 때 조화 배색 수가 매우 적게 나타나 어떤 색의 아이새도 색과 코디네이션 되느냐에 따라 조화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라 아이새도인 경우 자주 립스틱과 연두색 의복의 콘트라스트 코디네이션에 따른 32개 조합 중에서 조화된다고 지각된 조합의 수는 포멀 스타일은 4개, 캐주얼 스타일은 1개로 나타나 보라 아이새도와 빨강 립스틱에 청록색 의복의 조합에서와 유사하게 조화영역의 범위가 좁게 나타났다. 의복스타일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배색은 비비드 톤 립스틱에 덜 톤 의복으로 포멀 스타일은 조화되는 것으로 캐주얼 스타일은 부조화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고, 립스틱과 의복의 톤이 덜과 다크 톤으로 동일 톤 조합의 포멀 스타일이 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립스틱과 의복의 콘트라스트 배색에 의한 조화를 살펴보면 아이새도 색이 어떤 색인지에 따라 조화범위에 크게 차이를 보여 보라 아이새도이고 립스틱과 의복을 대비색으로 코디네이션 할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갈색 아이새도일 경우 조화범위가 비교적 넓어 조화배색이 다양하며 빨강 덜 톤과 주황 덜, 다크 톤 립스틱일 경우는 대비색의 의복을 착용하더라도 비교적 쉽게 조화를 이룰 수 있으므로 의복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립스틱과 의복이 다크톤으로 동일톤이고 포멀 스타일일 경우가 가장 높은 조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립스틱과 의복의 색이 색상차가 클 경우는 아이새도 색을 보라색 보다는 갈색으로 하는 것이 조화를 이루기가 쉬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정수진, 강경자, 2006)의 메이크업 색채조화에서 갈색 아이새도가 다른 아이새도 색일 경우보다 조화범위가 넓게 나타난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는 결과로 갈색 아이새도가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의 색채조화뿐만 아니라 의복착용자의 색채조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메이크업한 의복 착용자의 색채조화에서 얼굴은 작은 부분이지만 조화감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컬러 코디네이션에서 의복색 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색의 중요성

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메이크업이 의복의 색과 조화될 경우 전체 코디네이션의 상승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복색이 립스틱 색상과 색상차가 크게 나는 보색 및 분보색으로 선정되어 동일한 색이나 유사색의 의복과 배색될 경우보다 조화범위는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동일한 색을 사용하더라도 립스틱과 의복의 색으로 사용될 경우와 선행연구(강경자, 정수진, 2005)의 치마, 저고리의 콘트라스트 배색에서 대한 조화감을 평가한 경우와는 다소 차이를 보여 지각되는 대상에 따라 조화정도는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이상에서 대비색상의 톤 차이와 의복스타일에 따른 128개의 조합 중 조화된다고 지각한 배색 수는 포멀 스타일에서 18개, 캐주얼 스타일에서 22개로 나타나 조화영역이 좁게 나타났으나 포멀 스타일 보다는 캐주얼 스타일에서 립스틱과 의복의 톤 배색에 대한 조화범위가 다소 다양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배색이라도 의복스타일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를 수 있고 동일한 의복스타일도 의복과 립스틱의 색상과 톤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되느냐에 따라 조화정도가 다르게 지각됨으로서 사용되는 색상과 함께 명도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색조는 메이크업과 의복을 코디네이션 시킬 때 중요한 변수임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컬러 코디네이션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을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하여 톤 조합에 따른 조화정도를 분석하는데 의의가 있으며, 메이크업과 의복의 조화로운 배색은 의복 착용자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콘트라스트 배색방법에 따라 조화감을 분석한 자료는 메이크업과 의복의 색채개발 및 컬러 코디네이션의 조화로운 배색방법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착의자 모델과 피험자를 20대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연령과 성별에 따른 지각 차이를 다루지 못하였으며, 콘트라스트 배색에 따른 조화정도는 다소 규명되었으나 자극물 선정 시 의복색과 의복스타일 및 관련 변수를 제한하였으므로 확대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조화감, 콘트라스트 배색, 메이크업, 의복

## 참 고 문 헌

강경자 (2001)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 지각반응연구(I)-톤 인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5(4), 731-742.
- (2002)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톤 온 톤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 의류학회지, 26(3/4), 443-453.
- 강경자, 문주영 (2004)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II)-유채색과 무채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8(7), 962-973.
-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IV)-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825-836.
- 금기숙 (1997) 복식조형을 보는 시각. 서울: 이준.
- 김수석 (1993) 조형심리학입문. 서울: 지구문화사.
- 김영인, 주미영, 이현주, 김석정 (2004) 국내외 메이크업 브랜드 색조화장품의 색채 특성. 한국색채학회지, 18(2), 91-101.
- 김영자 (1992) 한국의 복식미. 서울: 민음사.
- 김윤경, 강경자 (2003) 의복스타일, 색, 톤 조합이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7(3), 395-406.
- 김희선 (2002). 색조제품의 유행색 데이터 관리를 위한 색채 분석.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2), 107-110.
- 김희숙, 이은임 (1996) 메이크업과 패션. 서울: 수문사.
- 박영순, 이현주 (1998) 색채와 디자인. 서울: 교문사.
- 박은주 (1999) 색채조형의 기초. 서울: 미진사.
- 박희순 (2002)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색 경향. 복식, 52(6), 15-24.
- 송미영, 박옥련, 하종경 (2005) 색채 메이크업에 의한 얼굴 이미지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7(5), 527-534.
- 신향선 (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변인에 관한 연구-메이크업, 헤어, 의상 색채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원명십, 이명숙 (1998) 한국여대생의 의복 및 화장품 색채 선호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0(6), 47-67.
- 유금화 (2002) 여성 정장의 2색 배색에 의한 이미지 지각.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송옥 (1996) 복식의장학. 서울: 수문사.
-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연희 (2001) 색채화장이 얼굴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영향-유행 예측색을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영 (1992)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 이정옥, 권미정, 박영실 (1995) 한국도시여성의 얼굴색과 의복색과의 배색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3(2), 167-180.
- 은소영, 주소현, 이경희 (2002) 의복배색의 시각적 감성연구 (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6(5), 715-726.
- 임지영 (2006) 셔츠와 넥타이의 배색방법에 따른 조화감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수진, 강경자 (2006) 메이크업 시 컬러코디네이션의 조화감에 대한 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아이세도 색상, 립스틱 색상 및 톤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색채학회지, 20(2), 31-43.
- (2006). 아이세도 색과 립스틱 색상 및 톤 조합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5), 69-78.
- 조민정 (2004) 패션디자인에 있어서 색채조합에 따른 색채 조화 유형과 체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용진 (1999) 얼굴 한국인의 낮. 서울: 세계절출판사.
- 한국인 인체치수 조사자료 (2004) 사이즈코리아. 자료검색 일 2006. 1. 30. 자료출처 <http://sizekorea.ats.go.kr>
- 한보현 (2003) 성인여성의 화장색에 관한 분석-메이크업 제품을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大坊郁夫 (1996). 對人魅力學からえたメイクアップへの提言, *Fragrance Journal*, 10, 11-16.
- Birren, F (1961) 색채심리. 김화중 역(1991). 사회심리시리즈 2. 서울: 동국출판사.
- Itten, J (1996) *The Art of Color*. New York: Reinhold Pub.
- Sook Hee Kim & Sanae Nakagawa (1999) Study on Color Harmony of Clothing- On the view of two color combination, *Journal of Color Science Association of Japan*. 23(1).
- Sweat, SJ, & Zentner, MA (1985) Attribution toward female appearance styles. In M.R. Solomon(ed.), *The psychology of fashion*. Lexington, MA: Heath/Lexington Books.
- (2007. 03. 02 접수; 2007. 05. 31 채택)